

세계 IT산업 전망 ‘흐림’

미국, 일본 등 경제대국들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세계 유수 경제기관들은 당분간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몇 년간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던 IT 산업의 침체에 대한 우려 또한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IT 산업이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소비자들의 더 나은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욕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고부가가치의 창출자로서 IT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2003년 전세계 IT 산업 전망을 분야별, 지역별로 분석 향후 IT 시장의 규모를 가늠해 보았다.

전세계의 경기 둔화 속에서 중국 경제 급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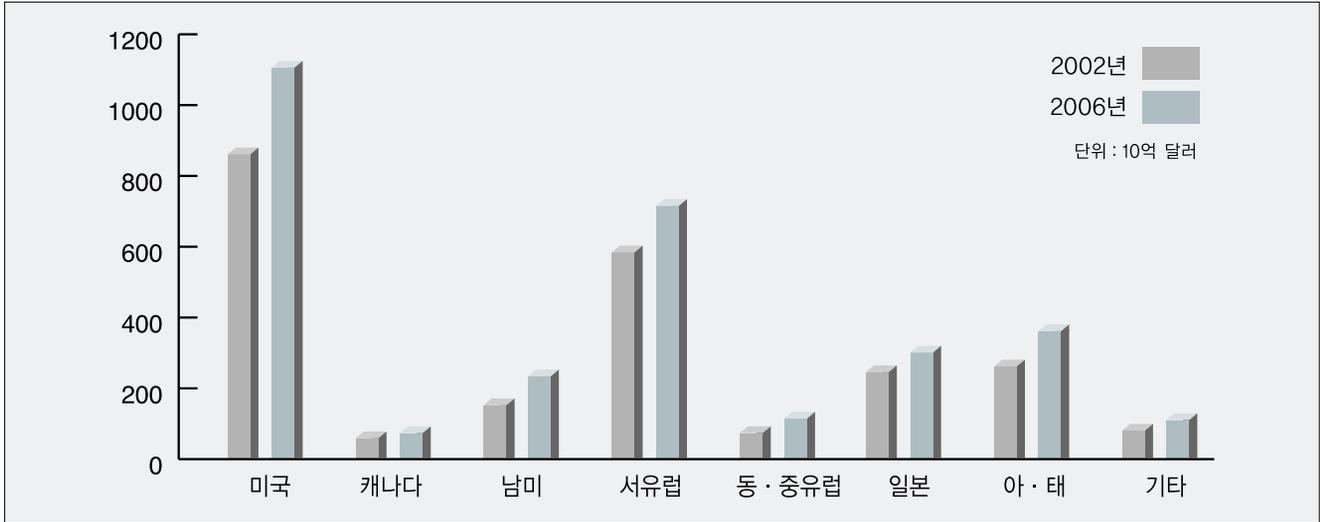
대이라크전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제유가상승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세계 경기의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을 동반한 장기침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까지 겹쳐 세계 경기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지난 11월 7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경기 부양을 위해 연방기금 금리를 41년만의 최저치인 1.25%로 인하했다. 이로써 금리

에서 물가상승률(1.5%)을 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25%로 일본에 이어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 국가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경제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2001년 3월부터 시작됐던 침체기는 특별한 소비위축 없이 슬그머니 왔다가 지나가 침체의 골이 그다지 깊지 않았다. 특히 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에도 미국은 ‘더블딥(double-dip:경기이중침체)’의 가능성에서 벗어나 올 하반기 3%대의 성장률을 기록, 세계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지역별 IT시장(Spending) 전망

〈단위 : 백만달러〉

연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6년	CAGR 2001~2006
미국	829,797	856,902	916,127	1,106,732	5.9%
캐나다	50,961	52,393	56,692	70,288	6.6%
중남미	144,199	153,062	166,305	227,807	9.6%
서유럽	574,743	584,515	615,818	714,166	4.4%
동·중유럽	66,295	73,198	82,592	108,859	10.4%
일본	243,600	242,988	253,264	296,786	4.0%
아·태지역	244,790	258,922	284,630	361,445	8.1%
기타	72,360	80,167	87,689	113,449	9.4%
All IT	2,226,744	2,302,145	2,463,119	2,999,531	6.1%



그러나 미국의 이런 마이너스 성장은 일시적이지만 일본의 경기 둔화는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한때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을 꿈꿨고 무역흑자국의 상징이었던 일본이 현재 사상 초유의 제로 금리 시대를 2년째 맞고 있으며 경기 활성화 조짐 또한 없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7~8% 대의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며 유일하게 경제 활성화를 누리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세계 경제 구도는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이 개편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S/W, IT 서비스, 통신서비스...IT 산업 성장 견인

지난 1995~2000년은 IT산업의 최고 성장기였다. 그러나 2000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경기침체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IT산업도 불황기에 접어들었다. 당초 2002년 하반기부터 전세계 IT산업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2003년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IT 관련 시장조사기관인 Gartner에서는 향후 전세계 및 미국의 경기회복 시점과 본격적인 성장기, 그리고 IT산업의 부문별 경기회복 시점과 본격적인 성장기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전반적인 세계경기는 2003년 1/4분기에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며, IT산업경기는 2002년말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2003년 2/4분기에는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2002년 전세계 IT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3.4% 성장한 2조 3021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IT산업을 크게 H/W(컴퓨팅 시스템+주변기기), S/W IT 서비스, 통신(통신장비+통신

서비스) 부문 등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IT산업을 활용하는 최종 소비자(End-user)들의 지출액(Spending)을 기준으로 '전세계 IT 시장 규모'를 가늠한 것이다.

전세계 IT 시장(Spending) 전망을 살펴보면 통신 부문이 1조 3446억달러로 전체 IT 시장의 58.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IT 서비스 부문이 5575억달러로 24.2%의 점유율을, H/W 부문은 3233억달러로 14.0%, S/W 부문이 769억달러로 3.3%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2002년 H/W 부문과 통신장비 부문의 시장 규모는 각각 전년 대비 -1.3%, -5.6%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가 바로 H/W와 통신장비 부문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밖의 S/W, IT 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부문은 전년 대비 각각 3.6%와 2.8%, 그리고 8.8% 성장해 전세계 IT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37.2%에 해당하는 8569억달러를 미국이 차지하면서 아직은 IT 시장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 뒤를 이어 서유럽 지역이 25.4%, 일본이 10.6%,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2006년에는 미국이 36.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서유럽과 일본은 각각 23.8%와 9.9%로 하락하는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2.1%, 중남미 7.6%, 동·중유럽이 3.6%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도 미국, 일본 등 경제대국들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IT산업의 침체는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기가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 회복세로 돌아설 경우 IT산업도 침체국면에서 탈피, 초기 상승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해 본다.

※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요국 IT산업백서'

국내 IT산업 전망 하반기 '차차 갸'

2000년 초부터 시작된 IT업계의 불황이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다.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났다는 신호 또한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고성장을 구가하는 '알짜' 기업들은 있다.

IT경기는 언제 회복세로 돌아 설 것이며, '알짜' 기업으로 성장할 '금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에 국내 IT업계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2003년도 IT업계 경기전망조사'를 실시, 국내 IT경기를 전망해 보았다.

반도체 · 통신서비스 · 디지털가전 등 선전, PC 주변기기 · 통신장비 등 부진

새해 국내 IT업계 경기는 늦어도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IT산업을 둘러싼 주요 변수로 세계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중국 변수, 내수 침체, 환율, 유가, 금리 등을 꼽았다.

이중 가장 큰 변수는 세계경제 성장률로 2002년의 2.1%(추정치)보다 높은 2.5%~2.9%로 전망되며 이같은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주로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대다수 CEO들도 올 상반기에도 부진이 지속되지만 하반기에는 IT경기가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한다. 호조세를 펼 것이라고 예상되는 업종 가운데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반면, 올해 부진이 예상되는 PC 및 주변기기, 서버/스토리지 업종들은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대기업은 향후 경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기가 회복되길 바라는 희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호조를 보일 업종으로는 통신서비스와 디지털 가전, 엔터테인먼트, 단말기, 인터넷서비스를 꼽았다. 반면 PC 및 주변기거나 서버·스토리지, 통신장비, SI·솔루션, 정보부품 등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견해다.

특히 인터넷서비스와 통신서비스 업종은 업종 간 빈부격차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업종을 비롯해 빈부격차가 심할 것이라고 조사된 반도체, 엔터테인먼트 모두 올 선전이 기대되는 업종들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내가 몸담고 있는 업종의 빈부격차가 제일 심하다'는 일

종의 피해의식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IT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만큼 업종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소위 '잘 나가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돼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반도체

올해 반도체산업은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반도체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이 아니라 수요측면의 회복에 따른 가격상승이 이뤄져야 하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수요증가를 견인할만한 확실한 응용제품이 등장하지 않는다.

지난해 4/4분기의 경기 상승은 일부 선발업계의 제품전환에 따른 공급차질에서 비롯된 것이며, D램의 아키텍처분야를 기존 주력상품인 Sync에서 DDR로 전환시킴에 따라 일부기업에 편중되는 수혜가 나타났다. 올 상반기 중에 대부분의 D램업체가 신속히 DDR로 전환됨에 따라 또 다시 공급과잉 재발 우려가 있다.

휴대폰 등 모바일 수요는 증가해 플래시메모리, S램 등의 경우 소폭 신장될 전망이다. 모바일제품은 비메모리의 비중이 높아 수입이 크게 늘어 올해 역시 반도체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통신 서비스

2003년 국내 통신시장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해 성장둔화가 예상되나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의 고도화,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어 신규수요가 창출되고 이동전화기를 중심으로 한 수출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2년 이후 데이터네트워크 시장의 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cdma2000 1x EV·DO 서비스와 함께 IMT-2000 서비스 상용화는 신규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비투자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이는 세계시장에 신규서비스 등장이 부진하고 내수시장도 안정세를 보여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신규공장 건설 등 대규모 라인구축보다는 합리화나 연구개발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 통신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무선데이터 관련 기기와 IMT-2000 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동전화기, 시스템 등의



수출수요를 기반으로 생산이 다소 확대돼 전년 대비 16.4%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전

2003년 국내 가전시장은 월드컵 특수와 같은 특별 이벤트 부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가전시장 확대와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 등장, 디지털 기기 가격하락 등의 요인으로 약 10.1% 신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TV 등 고가의 디지털 가전 수출 증가, 백색가전의 수출단가 인상 등 수출구조의 고도화 진전으로 수출이 계속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생산은 9.6%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수출은 전년도와 비슷한 8.9%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며, 내수를 대신해 가전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기가 올해보다 높은 성장세를 시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계 각국의 디지털 방송개시 또는 본격화 등으로 고가의 디지털 가전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입은 민간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와 중국산 저가 가전제품의 수입 증가로 10.7% 증가할 전망이다.

■ 컴퓨터

2003년 국내 컴퓨터산업 생산은 IT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 투자 수요 증가, PDA 등 포스트 PC와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수요 증가, 중국, 인도 등 아태 지역의 IT 경기 지속 성장 등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한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는 PC의 업그레이드 수요 증가, 모바일 비즈니스 확산에 따른 PDA 수요 증가, 고성능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지속적 수요 증가, 업체간 경쟁 확대에 의한 지속적 가격 하락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전년대비 8.1% 신장된 1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컴퓨터산업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경기의 조기회복 여부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점차 대미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 업체들의 수출선 다변화 노력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년대비 7.9%의 수출 신장세가 예상된다.

■ 일반전자부품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반전자부품산업은 전자관 및 전자관부품, 인쇄회로기판, 액정디바이스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기침체와 중동지역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대상국이 중국, 유럽, 남미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9%내외의 수출 증가세가 예상된다.

미국경기 회복이 최대 관건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는 IT업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한국의 IT경기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62.0%가 '올해 IT 경기에 영향을 미칠 가장 커다란 변수'로 '미국의 경기 회복'이라고 답한 것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외 새정부 출범과 공공투자 확대, 대이라크전, 북핵문제, 국내 소비위축, 중국의 경제성장 등이 주요 변수로 꼽혔다. 그러나 자신의 회사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업종별로 대답이 판이했는데 SK텔레콤 등의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통신정책'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통신요금 인하와 IT펀드 조성, KT와 SK텔레콤의 주식 스왑 등의 정책을 관철시켰고, 휴대전화의 번호 이동성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정책의 시행은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통신사업자간 명암을 교차시키고 있다. 통신서비스 업체들이 정부정책을 목표 달성의 핵심 변수로 꼽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밖에 SI/솔루션, 서버/스토리지 업체들은 대기업 및 금융기관, 정부 공공기관의 투자확대 여부를 가장 큰 중요 변수로 꼽았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업체들은 경기회복 여부와 PC의 교체수요 도래 여부를, 단말기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여부라고 답했다.